

# 문화전당·충장로 가자, 亞 연극 보러

한·중·일 '베세토 페스티벌'

13~28일 광주서 개막

말레이시아·대만 작품 등 7개

어린이 공연 5편도 무대에

한국·일본·중국 3개국 연극인들이 만드는 '2018 베세토 페스티벌'이 오는 13~28일 광주에서 열린다. 충장로와 공옥진의 1인 창무극 등 광주문화 특색을 담은 작품을 선보여 의미를 더한다.

베세토페스티벌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베세토페스티벌을 공동 기획해 문화전당과 광주 충장로 등에서 개최한다.

3국의 수도인 베이징(Beijing), 서울(Seoul), 도쿄(Tokyo)의 첫 소리를 탄 '베세토(BeSeTo)'는 지난 1994년 창설해 서울에서 첫 무대를 가진 뒤 한국, 중국, 일본을 돌아가며 열리고 있다. 올해 25회째를 맞아 한국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처음으로 수도권이 아닌 광주에서 펼쳐진다. 축제 기간 동안 한·중·일 그리고 말레이시아, 대만의 7개 작품에 '베세토 키즈' 5개 공연을 더해 총 12개의 작품이 무대에 올려진다.

양정웅(50) 한국 베세토위원장은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중·일을 넘어 아시아 공연예술 교류를 확대하고 유망 예술가의 진출 무대를 마련하고자 알차게 행사를 마련했다"며 "관객들과 장소에 담긴 이야기를 공유하는 장소특정형 공연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회식 총연출가로 활동한 그는 2012년 서울에서 열린 19회 베세토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22회, 25회에 걸쳐 3번째 한국 위원장을 맡고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작품은 광주 충장로 우체국사거리를 무대로 삼은 '여우와 두루미\_우다방에서'다. 극단 '서울괴담'은 13일(오후 5시)과 14일(오후 3시) 충장로우체국 앞에서 이습우화 '여우와 두루미'를 인형극으로 풀어낸다. 광주 7080세대에게 '만남의 장소'로 통했던 이른바 '우다방'에서 첫사랑의 추억을 간직한 유명봉 연출가는 지역민에게 각별한 장소를 기반으로 이념과 갈등을 넘은 '만남'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서울괴담과 공모를 통해 뽑힌 시민 배우 10여 명은 북적거리는 주말 충장로 한복판에서 여우와 두루미의 '만남'을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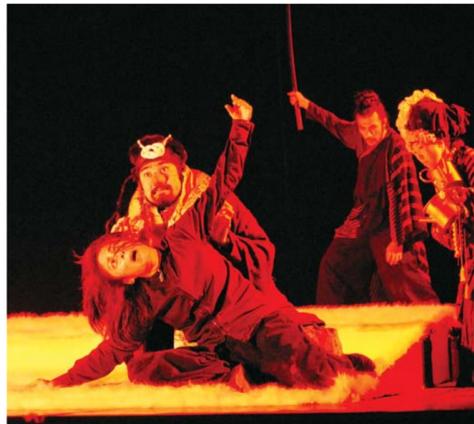
한국 극단 '그린피그'는 공옥진과 1인창무극을 탐구한다. 연출가 윤한술은 '이야기의 방식, 노래의 방식-데모버전'의 연속 기획물로 '이야기의 방식, 춤의 방식-공옥진의 병신춤 편'을 가지고 19일(오후 8



한국 '이야기의 방식, 춤의 방식-공옥진의 병신춤 편'.

시), 20일(오후 4시) 문화전당 예술극장 아틀리에 1에서 관객들을 만난다. 병신춤을 현대화된 방식으로 관객이 읽어낼 수 있도록 '키네틱 아트(Kinetic art)'를 활용한 게임으로 다시 탄생시켰다.

일본 극단들은 각각 한국의 희곡과 중국 소설을 무대로 끌어냈다. 이와사와 테츠야는 박조열의 1974년 희곡 '오장군의 발톱'을 통해 전쟁의 비극성을 들여다본다(12일 오후 7시, 14일 오후 5시 예술극장 1). 중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루쉰의 '주검'(1927)은 일본 버드 시어터가 '검을 버리는 이야기'로 새롭게 해석해 구체제의 변혁을 향한 강렬한 열원을 배우의 역동적인 몸짓으로 그려낸다(20~21일 오후 2시 예술극장 1).



아시아 공연예술축제 '베세토 페스티벌'이 오는 13~28일 광주에서 처음 열린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한국 '여우와 두루미\_우다방에서', 중국 '경혼기', 대만의 '내가 처음 달을 걷던 그때', 일본 '검을 버리는 이야기'.

중국 안후이성 휘극-경극원은 20~21일 오후 6시 예술극장2에서 '경혼기'를 통해 400여 년 전통의 휘극을 선보인다. 독특한 음색을 이용한 경극 고유의 기법은 유지하면서 무용을 접목해 가극적 요소를 활성화했다.

올해는 한·중·일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와 대만 공연팀을 초청하고 카자흐스탄, 스리랑카, 로힝야 난민 등 아시아의 다양한 이야기를 현장의 어린이가 직접 참여해 즐길 수 있는 '베세토 키즈'를 오는 20일까지 함께 진행해 교류 영역을 넓혔다는 평을 얻고 있다.

말레이시아 토키타 스튜디오는 관객이 50분 동안 휴대폰을 가지고 문화전당 야외 공간을 돌아다니며 과제를 완수하는 쌍방향 음악공연 '모바일 폰 오케스트라:당신이 있는 여기에 내가 있어요.'를 27~28일 5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대만의 '내가 처음 달을 걷던 그때'는 객석을 3m 높이에 마련해 무중력을 향한 갈망을 표현한다(27일 오후 4시·7시·밤 9시, 28일 오후 1시·4시·7시 예술극장 1).

관람료 1만~2만원('여우와 두루미\_우다방에서'·베세토 키즈 공연 무료). 문의 1899-5566.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다시 태어나는 빛'

## 이이남 작가, 런던·상하이 전시

11월4일까지 폰토니갤러리·내년 1월 3일까지 MoCA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작가가 영국과 중국에서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이 작가는 지난 5일부터 오는 11월 4일까지 런던 폰토니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고 있다.

'리애니메이터(Re-Animator)'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이 작가는 구스타프 클림트의 '키스', 겸재 정선의 '박연폭포'를 비롯해 빈센트 반 고흐, 디에고 벨라스케스 등 작가들의 대표작을 자신만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대형 LED스크린으로 선보인다.

'작품문명전투도-스타워즈(The Battle of Civilisation-Star Wars V)'는 초봄의 충만한 기운을 조용하고 아름답게 표현한 광희의 '조춘도'와 공상과학 이미지가 어우러져 눈길을 끈다.

이 작가는 오는 2019년 1월 3일까지 상하이 현대미술관(MoCA상하이)에서

열리는 MoCA 13주년 전시에도 참여중이다. '마인드 템플'(Mind Temple)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각국에서 20명의 아티스트가 참여,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다시 태어나는 빛(La Pietà)'을 전시중이다.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상에서 모티브를 얻은 작품으로 예수그리스도가 성모마리아의 품에서 한참 떨어져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현재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와 광주비엔날레, 창원조각비엔날레 등 비엔날레에 참여중인 이 작가의 해외 일정은 계속된다. 10월 파리, 벨기에, 스위스에서 전시가 예정돼 있으며 앞으로도 네덜란드 헤이그, 오스트리아 인스브르크 전시도 준비중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일순간 김미지 개인전 15일까지 갤러리 리체

김미지 작가 개인전이 오는 15일까지 갤러리 리체에서 열린다.

갤러리 리체가 올해 3회째 진행한 청년작가 지원 초대전 공모에 당선돼 진행되는 전시다.

'일순간(一瞬間)'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김 작가는 현대인의 고민 등 다양한 감정을 표현한 작품들을 전시중이다.

'오후 4시23분의 기록', '기억', '망' 등 전시작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것은 동그란 '구(球)다. 짙은 푸른색과 다채로운 색깔의 그라디이션으로 표현한 작품은 겉으로 보기에 단조로운 구의 형태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삼각뿔 모양이 겹쳐 있다. 작가는 "이상과 현실에 대한 고민으로 지쳐 예민한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한다.



'기억' 시리즈

조선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김 작가는 현재 동대학원 미술학과 석사 과정에 재학중이다. 광주시미술대전에서 특선했으며 청년예술지원센터 레지던스 프로그램 입주작가로 활동했다. 문의 062-412-0005.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5가역 1층 02) 765-9940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선정

IPALG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완벽방수 내구성보강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OO초등학교 맞춤형디자인 시공후

6년무상A/S 정기점검

시공전 시공후

원룸건물 맞춤형디자인 시공후

완벽한방수 난연소재 맞춤형디자인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특허공법·디자인방수·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광주전남 대리점 (062)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